



줄다리기



풍등날리기



용왕제

전통 즐기고 희망 키우고...영광서 새로운 '천년 여행'

법성포 단오제 6월 7일~10일

“새로운 천년, 영광에서 시작하라.”
 굴비의 본고장인 영광 법성포에서 매년 음력 5월 5일을 전후해 열리는 법성포 단오제가 올해는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일원에서 열린다.
 “천년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전통 단오제에 의식을 재현하는 산신제와 당산제, 용왕제 등 제전행사는 물론 전국단위 민속문화

산신제·당산제 등 제전행사
 씨름대회·강강술래 등 민속놀이
 전통 줄타기 공연 올해 첫 선
 송가인 등 유명가수 축하무대도

행사인 전국 국악경연대회, 단오장사씨름대회, 강강술래, 단심줄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 경연 및 관객 참여·체험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채워진다.

행사 첫날이자 단오날인 7일에는 영광예술제, 산신제를 시작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단오시가지 퍼레이드와 단오제 개막식이 행사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가수 송가인, DJ DOC 등의 축하무대가 이어진다.

둘째날인 8일에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관광객과 함께하는 선유놀이가 진행되며 특설무대에서는 전국청소년 트로트가요제와 초대가수 김성환, 송대관, 박남정 등의 축하공연이 함께한다.

셋째날인 9일에는 제18회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용왕제, 전통 줄타기 공연, 법성포 단오가요제가 펼쳐진다.

법성포 단오가요제에는 초대가수 다비치, 마마무 등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통 줄타기 공연은 9일과 10일 양일간 펼쳐지는데 민족의 세시풍속인 단오의 특성과 어우러지면서 풍자와 해학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우도농악과

서호농악 공연, 지역민의 참여로 만드는 실버장기 자랑도 기대를 모은다.

폐막식에는 박미경, 양수경, 윤도현밴드가 무대를 꾸며 4일간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법성포 단오제 축제를 함께 즐기고 영광의 다양한 음식과 아름다운 관광지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전통 줄타기 공연

조창 형성되며 시작...조선 중기 이후 대중적 행사로 자리잡아

법성포 단오제 유래와 특징

제전 형태 나눔과 어울림 한마당
 줄다리기 이후 동아줄은 선박 닻줄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무형문화재 지정

영광 법성포 단오제의 시작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살펴볼 때 법성포에 조창이 형성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창에 군사와 인부들이 머무르게 됐고, 이들을 따라온 식솔들과 장사꾼들이 거주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성포에 거주하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명절인 단오가 자연스럽게 제전의 형태를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법성포단오제가 대중적 행사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추정한다.

조선 중종9년(1514년)에 진성이 축조됐고 이 시기에 느티나무를 심어 방풍림과 휴양지로 활용했다. 이 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후 70~100년

간 성장해 무성한 숲을 형성하게 된 후로부터는 숲을 이룬 골짜기에서 비롯돼 ‘숲쟁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오늘날까지 단오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조창이 설치된 이래 산물이 풍성해 이곳에 자주 드나들던 보부상과 법성포의 우수한 물산객주들이 ‘백목전제’라는 협동조직을 만들어 치렀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를 뛰어넘어 매년 음력 4월5일에 난장트기를 시작으로 단오제 행사로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제전의 형태로 치러지는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나눔과 어울림의 한마당이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단오제가 어울림만 있고 나눔의 장이 없는 데 비해 법성포단오제는 나눔의 장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단오절이 되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귀천의 차이도 없이 서로 정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다.

정초에 하는 줄다리기 외에 단오절에도 줄다리기를 했는데 법성진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힘을 겨루면서

편편과 편이를 기원했다.

영광법성포단오제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면 당산나무에 줄을 감아서 풍작과 풍어를 기원하였는데 법성포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난 후 우람한 동아줄을 분리해 선박의 닻줄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법성포단오제의 특징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인 단오절에 여러가지 민속행사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다져왔다.

이러한 민족문화가 거의 사라진 지금 영광 법성포 단오제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는 전국국악경연, 단오장사씨름대회, 그네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비롯한 민속행사와 산신제, 당산제, 한제, 용왕제, 선유놀이 등 제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됐으며 2010년도에는 페스티벌 뉴스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123호로 지정돼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창포 머리감기(위)와 단오그네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왕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문의 (062)382-8879